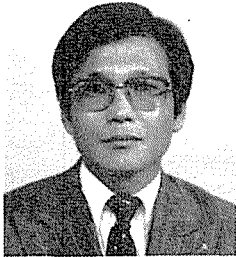


# OPEC의 現狀과 將來



鄭 廣 溶

(韓國石油開發公社 · 調査 1 課長)

## I. 岐路에 선 OPEC

1 960년 9월 바그다드에서 創設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를 통해 그 莫強한 위력을 遺憾없이 발휘해 오던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最近 견잡을 수 없는 破局의 危機에 몰리고 있다. 史上最大, 世界最強的의 카르텔로서 全世界의 經濟를 뒤흔들어 왔던 OPEC가 生死의 岐路에서 離合集散하며 存立을 위한 마지막 自求策을 講求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별다른 進度도, 必 죽한 目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OPEC는 國際메이저의 一方的인 支配에 對抗하여 會員國의 利害를 個別的, 集團的으로 옹호하기 위한 最善의 手段을 決定하는 것을 基本目的으로 決成된 카르텔이긴 하나 쓰고 남은 原油를 輸出하여 財政을 꾸려 나간다는 共通點 이외에는 13個 會員國中 거의 大部分이 政治·社會·宗教的으로 적잖은 對立과 갈등 속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80년 9월에 發발되어 좀처럼 終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란-이라크戰, 사우디等 페르시아灣產油國과 이란, 아랍 王政體制와 리비아의 社會主義 體制 등이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이런 對立에도 不拘하고 OPEC가 오늘날까지 큰 力量을 발휘해가며 存立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높은 原油價格을 維持시켜 石油歲入을 늘리자는 한 가

지의 共通分母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間에도 相互間의 不和나 問題點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大部分이 原油價格의 引上 幅을 놓고 小幅的으로 引上하자는 穩健派와 一時에 大幅的인 引上을 主張하는 強硬派 間의 見解差異에서 起因되는 것들이었다. 이같은 問題點들은 賣方市場(Seller's Market)下에서의 油價引上이라는 同一目標을 놓고 그때그때의 狀況에 따라 相互間의 절충과 양보, 설득과 理解로 比較的 용이하게 解決되었다.

## 需要減退로 破局의 危機에

그러나 最近의 양상은 그 때와는 判이하게 다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消費國들은 價格이야 여하튼지간에 原油의 供給을 確保하기 위해 產油國 駐在公館은 勿論 閣僚級 또는 元首級 購買使節을 잇달아 產油國에 과견하는 등 物量 確保를 위한 總力戰을 퍼 왔다. 그런데 狀況은 정반대로 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世界를 진동시킨 石油 危機를 통해 無資源國으로서의 실움을 절실하게 実感한 消費國들은 IEA(國際에너지機構)를 中心으로 積極的인 石油消費節約과 함께 非常時를 對備한 石油의 備蓄을 本格的으로 增強하는 한편 石油資源의 開發 및 代替에너지로의 轉換에 全力을 기울였다.

이같은 消費國들의 努力이 主효하여 石油의 需要

가 10여년 전의水準으로 減退되는 한편 非OPEC 産油國의 産油量이 急增하는데 따른 供給過剩 現象을 빚어 이제는 OPEC 産油國들이 原油를 処分치 못해 전전 公證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高油價로 인한 世界的인 경기침체와 石油需要減退, 非OPEC 産油量의 增加, 需給緩和에 따른 備蓄油 放出 등으로 石油市場은 供給過剩 現象을 빚고 産油國들은 販賣難에 崩潰하게 된 것이다. 販賣不振 때문에 主 收入源인 石油歲取로 그간 莫大한 오일달러를 믿고 방만하게 벌려 놓았던 經濟開發計劃의 財源調達 等 國家財政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2年以上 지속되는 이라크와의 戰費調達과 戰爭地域으로 宣布된 輸送路를 통해 原油를 輸出해야 함으로써 높은 戰爭危險負擔 保險料를 負擔해야 하는 이란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 보다는 심각했다. 이같이 財政的인 難関에 崩潰하게 된 이란을 비롯한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이 OPEC의 既存油價體制나 生産協定 等を 無視하고 非公式的인 덤핑이나 直·間接的인 變價 割引販賣를 斷行함은 물론 價格割引에 따른 歲取不足分을 充당하기 위해 一方的인 增産을 自행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OPEC 合意事項이나 規定을 잘 준수해 온 온건파 會員國으로서 U. A. E와 더불어 사우디의 手足役割을 맡아 오던 쿠웨이트까지도 公式價格(GSP)보다 每樽당 3弗이나 낮은 價格으로 相當量의 物量을 販賣하는 등 原油市場은 극도로 無질서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 再建을 위한 몸부림.

1982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열린 제 65차 총회에서 國別 生産쿼터 및 디퍼렌셜에 관한 妥結에 失敗함으로써 事實上的인 價格이나 生産 兩面에서의 카르텔體制가 붕괴된 상황하에서도 카르텔의 再結束 및 油價體制를 再구축하기 위해 努力해 온 사우디 등 온건파 회원國 등도 事態가 이에 이르자 1월 15일 바레인의 마나마에서 긴급회의를 開催하고 対応方案을 모 치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OPEC의 分裂을 防止하고 새로운 石油질서의 確立을 위한 이들의 說得이나 경고는 이란을 비롯한 一部 強硬派 産油國들에 의해 全的으로 無視됨에 따라 이들은 OPEC내에 GCC(페르시아灣協力協議會)를 中心으

로 한 地域共同體로서 单独的인 石油政策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 一部 強硬派 會員國을 비롯한 余他 OPEC 石油相들이 & GCC 石油相 會議가 열리고 있는 리아드에서 전격적으로 會同, 이들과의 妥協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当初 2일간으로 予定됐던 GCC 石油相 會議를 하루만에 서둘러 끝맺고 이들 余他 會員國 石油相들과 현안문제에 대한 協議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1월 16일에 열렸던 소위 8國國 石油相會議로 여기에서 상호간 重要한 절충방안이 合意되었다. 勿論 公式的으로 發表되거나 確認되지 않았으나 이들은 첫째, 그나마 명목을 유지해 오고 있는 1,720萬b/d의 生産上限線을 基準으로 한 國別生産쿼터를 策定하고 둘째, OPEC의 基準原油인 Arabian Light의 價格을 30弗로 每樽당 4弗을 引下하는 동시에 셋째, 1.5弗에 不過한 基準原油와 아프리카産 高級 輕質原油와의 價格幅(디퍼렌셜)을 3.8弗로 上向調整하기로 合意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8國國 石油相會議에서 이러한 合意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非公式會議로서 어떠한 구속력이나 公式的인 合意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를 公式的으로 確定짓기 위해 1월 23日 特別協議會를 召集하게 되었다.

이렇게 召集된 特別協議會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強경파 회원國들이 當初의 合意內容을 反復, 基準油價와의 디퍼렌셜을 더 벌려 그들의 油價를 引上할 수 없다는 強경한 反對에 부딪쳐 아무런 公式決定 事項도 없이 무산돼 버렸다. 이런 狀況下에서 世界石油 需給狀況은 더욱 完化되어 OPEC 原油의 需要는 더욱 떨어지고 石油會社를 中心으로 한 消費國들의 備蓄油 放出 및 原油導入 忌避 등으로 OPEC의 原油 販賣難 및 價格引下 壓力은 加一層 強化되었다.

전성기에 한때 3,000萬b/d를 넘어섰던 OPEC의 産油量은 계속 減少되어 1983년에 들어선 거의 절반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이에 따라 各國의 財政難도 다소간의 差異는 보이고 있으나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 非OPEC國의 價格인하

이같은 문제는 비단 OPEC 會員국 뿐만 아니라 英國, 멕시코 등의 非OPEC產油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이집트가 油價를 引下한 데 이어 比較的小規模 產油국이긴 하나 OPEC의 한 會員국인 에콰도르가 販賣不振에 따른 在庫累增으로 급기야는 原油生産을 全面 中斷하는 한편 OPEC 會員국으로서 最初로 市場實勢 價格에 따라 原油를 販賣하겠다고 OPEC의 基準油價 體制로부터의 離脫을 公式發表하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蘇聯이 西歐에 대해서 原油輸出價格을 내리고 英國과 노르웨이가 뒤따라 自國產 原油價格을 引下했다. 英國과 노르웨이의 北油產 原油와 品質 및 價格面에서 경쟁적인 위치에서 그렇잖아도 극심한 財政難에 허덕이던 아프리카의 大產油國인 나이지리아가 배럴당 5.5弗이라는 파격적인 公式價格의 引下를 斷行했다.

바야흐로 各 產油國間의 油價引下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從前까지는 그런대로 公式販賣價格은 그대로 維持시키면서 代會決濟期日의 延長, 現物販賣, 바터 去來 등 間接적인 價格引下를 해 온 데 비해 이번에는 公式販賣價格 그 自体를 引下시키기 始作한 것이다.

現在 OPEC의 議長國인 나이지리아가 이처럼 自國產 原油의 公式販賣 價格을 大幅으로 引下함으로써 現 34弗의 OPEC 基準油價 體制는 事實上 완전히 와해되어 基準油價를 비롯한 余他 產油國들의 油價引下는 不可避한 既定事實으로 이제는 그 正確한 幅과 時期의 決定만 남겨 둔 셈이다.

결국 產油國들은 自中之難 속에 계속되는 需要減退로 위축된 마켓웨어를 確保하기 위해 出血競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危機를 맞게 되었다. 다시 協商이 始作되었다. 리비아,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強硬派는 2月 22日 제네바에서 사우디, U. A. 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 5個 灣岸國은 2月 22日부터 2日間 리아드에서 各各 모임을 갖고 對策을 숙의하였다. 2月 23日 灣岸 5個國 石油相 會議가 閉한 후 가진 記者會見에서 사우디의 야마니 石油相은 合議에 직접 參席한 5個國과 電話로 協議에 應한 인도네시아 등 6個國이 原油價格을 引下하기로 原則적인 合意를 하였다고 말하고 그 幅은 狀況如何에 따라 決定될 것이라고 밝혔다.

公式 確定된 事項은 아니나 이들은 이 會議에서

OPEC 基準原油價格을 배럴당 30弗로 4弗을 내리고 生産上限線을 1,650萬b/d~1,750萬b/d 水準으로 한 國別生産 쿼터를 決定하기로 合意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合意에도 不拘하고 야마니 石油相이 이를 具體적으로 公表하지 않고 또한 油價引下幅을 狀況에 따라 追后決定할 것이라고 여운을 둔 것은 出血적인 價格引下競争과 더 以上の 內部分裂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 리비아 등의 強硬派 會員國들에 대한 政治적인 配慮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 非OPEC產油國에의 協助 모색

한편 灣岸 5個國 會議가 閉한 2月 24日부터 베네수엘라의 칼테론 石油相은 리아드, 빠리, 런던 등지를 바쁘게 오가며 灣岸 產油國들은 勿論 알제리, 리비아 등의 強경과 會員國, 멕시코, 英國 등의 非 OPEC 產油國들과 精力적인 調整役割을 遂行했다. 이처럼 OPEC가 對內的인 協議와 並行해서 非 OPEC 產油國들과의 協助體制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前例없는 일로서 지난해부터 石油市場의 生産체어가 이들에게 뒤지기 始作한 한편 울 들어선 價格의 主導權마저 빼앗긴 셈이 되어 버린 OPEC로선 當然한 處事로 石油市場에서 OPEC의 地位가 相對적으로 低下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칼테론 베네수엘라 石油相이 동분서주하며 적극적인 중재외교를 벌인 결과 강·온건파간의 主要 8個會員國 石油相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3月 3日과 4日 兩日間 런던의 오타이바 U. A. E. 石油相 私邸에서 열린 8個國 石油相 會議가 그것이다. 사우디를 비롯해 U. A. E., 나이지리아, 리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알제리 등 강·온건파간의 主要會員國들이 거의 모두 參席, 全世界의 非常한 關心을 모으며 2日間 계속된 이 會議에서도 7日 다시 非公式 全体 石油會議를 召集한다는 데에만 意見의 一到를 보았을 뿐 價格이나 生産쿼터 設定에 관해 별다른 妥協點을 찾지 못하였다.

OPEC이 解決해야할 問題의 포인트는 灣側이 主張하는 대로 30弗線으로 基準油價를 下向調整할 경우 이미 30弗로 引下된 나이지리아產 油價를 最

小限 1.5弗以上 引上시키기 위한 說得이 必要한데 이것이 그 첫번째 포인트이며 설사 나이지리아가 이를 受諾한다 하더라도 經濟關係에 있는 北海產原油價格도 同率引上되지 않으면 안된다. 베네수엘라의 칼데론 石油相이 英國等 非OPEC產油國들과 協議를 벌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問題에 대한 事前 保障을 얻기 위함이다.

두번째 포인트는 國別 生産쿼터로 이란등의 強硬派 產油國은 사우디 主導의 生産쿼터 設定을 強力히 反對하고 있는 立場이며 사우디는 產油量의 決定은 國家主權에 歸屬되는 問題라며 規定에 依한 속박을 거부하고 스윙 프로듀서로서 그때 그때의 需給狀況에 따라 產油量을 임의 調整해오고 있다. OPEC의 主導權 쟁탈전이라고 할만큼 重要한 쿼터 配定을 둘러싸고 이란과 사우디의 팽팽한 對立을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것이 그 두번째 포인트이다.

세번째 포인트는 價格과 生産쿼터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會員國들이 이를 얼마나 充實히 遵守하는 가 하는 問題이다. 現 體制下에선 合意事項이나 決定事項을 위반하여도 이를 效果的으로 制裁하거나 응징할 수 없기 때문에 最近과 같은 供給緩和 狀況下에서는 어떠한 合意가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會員國 모두에 의해 철저히 遵守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協定事項의 效果的인 管理 및 統制를 위한 制度的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OPEC의 勳勳을 위한 當面課題中的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의 要請으로 予定보다 하루 늦은 3月8日부터 런던의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자리를 옮겨 始作된 長期間의 마라톤 會議에서도 基準油價를 29弗로 배럴당 5弗을 引下하고 나이지리아 產油價는 30弗, 리비아와 알제리 產油價는 30.50弗로 한다는 등 價格問題에 關해서는 多少의 進展을 보였을 뿐 現難局 打開에 重要한 關鍵이 되고 있는 國別쿼터 配定 問題에 關해서는 아직도 意見의 幅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對立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II. OPEC의 方向

世界經濟의 主役으로서 그토록 聲망을 떨치던 OPEC가 오늘에 와서 이같이 無力해진 것은 어느 면

에서는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10월에 발발한 第4次 中東戰으로 인한 第1次 石油危機를 통해 石油價格의 決定權은, 1974年 이란의 政變으로 야기된 第2次 石油危機를 통해 그 販賣權을 各各 確保함으로써 世界石油可採埋藏量의 65%라는 莫大한 富의 源泉을 背景으로 OPEC는 名實共히 그 莫強한 힘을 張악하게 되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위기를 통해 石油가 政治的인 商品으로서 그 價格도 人爲的으로 얼마든지 操作할 수 있다는 事實을 믿게 됨으로써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價格體制의 混亂과 各會員國間의 利害의 對立을 自招하게 되었다. 需給逼迫狀況을 기화로 各產油國이 앞다투어 프리미엄이나 Surcharge란 명목의 割増金을 賦課함으로써 基準原油(Arabian light)價格에 所定의 디퍼렌셜(Differential)을 加減하여 各油種의 GSP(Government Sales Price)를 算出하는 이른바 單一油價 體制가 붕괴되는 混亂을 초래하였다. 이를 OPEC가 公式的으로 認定한 것이 1980年 2月발리섬에서 열린 제59차 총회이다.

即 基準原油價格 32弗을 그대로 두고 他油種에 適用하는 假定基準價格(Deemed Marker Price)를 36弗로 別途 策定하는 한편 最高價格을 36弗로 制限한다는 多重價格 體制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販賣權의 張악은 各產油國이 적은 量의 原油를 多數의 消費者에게 販賣하는데 따른 會員國間의 利害對立이나 石油市場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要因이 될 可能性이 있다는 이라크의 알·찰라비(OPEC 제1의 理論的 指導者)의 指適과 같이 OPEC는 이같은 莫強한 權限을 손에 쥌으로써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內部對立이나 갈등의 火근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OPEC의 聲망을 꺾는데 主효한 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消費國側의 냉정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1차 석유위기를 경험한 消費國들은 石油備蓄의 增強, 非石油 代替에너지로의 轉換, 에너지節約等 非常時의 對策을 講求하게 되었다. 特히 事實上 OPEC의 對抗機構로서 1974年 키신저의 提唱으로 設立된 IEA(國際에너지機構)를

中心으로 한 石油輸入依存度輕減, 高價의 現物原油 購買自制, 代替에너지開發, 備蓄增強등 國際의 레 벨의 対応策이 活潑이 展開되었다. 결과 1980년 0.7%가 增加했던 世界 第1次에너지 消費伸長率은 81년엔 0.64%가, 石油의 消費는 81년 61,610千b/d에서 82년엔 59,845千b/d로 2.86%가 各各 減少되는 등 石油의 需要는 지난 1979년의 64,145千b/d를 絶頂으로 계속 떨어져지고 있다.

한편 石油危機를 통한 供給不安과 高油價에 시달린 消費国들은 自体石油 資源의 開發에 迫車를 加해 지난 1974년 1,450萬b/d水準에 머물던 非OPEC 自由世界의 産油量은 1982년에 1980萬b/d로 增加해 世界全体 産油量의 37.4%를 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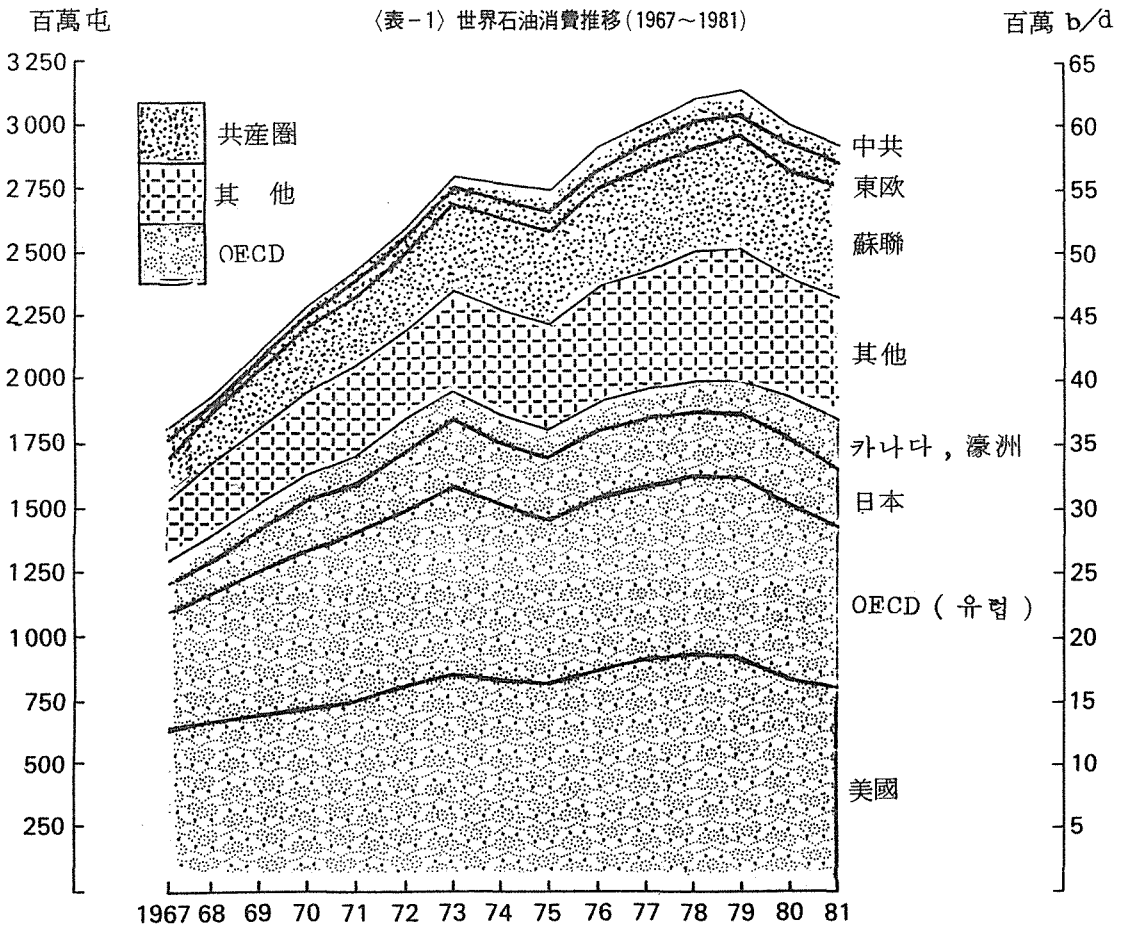
결국 1次石油危機 當時인 1974년과 1975년에 各 各 54.8%와 51.1%란 높은 生産占有率을 보였던 OPEC의 生産量은 2次危機時인 1979년以來 계속

점감돼 지난해에는 世界全体 産油量의 35.1%에 不過한 1,860萬b/d의 낮은 産油量을 記錄하게 되었다.

또한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世界全体의 産油量은 1979年을 絶頂으로 계속 減少되고 있는데 반해 北海나 멕시코를 包含한 非OPEC産油量과 共産圈의 産油量이 持續적으로 增加함에 따라 OPEC는 相對적으로 그 地位가 현저히 弱화돼 왔다. 이 와같이 非OPEC産油量이 점증하는 가운데 需要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1983年 2月 現在 産油量이 1,350萬b/d以下の 水準으로 激減하는 등 一方的인 減産壓力을 받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2~3年前만 하더라도 尙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굴욕적인 油價引下 論爭을 벌리게 된 것이다.

### OPEC의 限界露出

OPEC가 이처럼 供給의인 側面에서 一方的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된 要因으로 첫째 OPEC 會員國들의 生産政策을 들 수 있다. 石油를 主收入源으로 하고 있는 大多數 OPEC 會員國들의 産油政策은 生産量의 調整을 需要狀況에 따르지 않고 油價를 一定水準으로 固定시키고 이에 맞추어 財政所要資金이 充當되도록 그 物量을 決定하고 있다. 따라서 價格이 大幅的으로 上昇할 때는 資源保存 政策을 強化하여 生産量을 줄이고 反對로 價格이 下落하면 産油量을 늘려 財政需要를 充足시키고 있다. 即, 需給狀況이나 經濟原則을 도의시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要因으로 英國과 노르웨이, 멕시코등 強力한 非OPEC 産油國이 등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3個國의 産油量은 지난 1974년엔 64萬b/d水準으로 世界 全体의 1.1%에 不過한 미미한 것이었으나 계속 急激히 增加하여 지난 해에는 590萬b/d로 약 90倍가 增加되면서 世界 全体 産油量에 對한 占有比도 OPEC가 35.1%인데 반해 11.1%로 國際 石油市場에서의 기반을 確固히 굳히고 있다. 이들 非OPEC 産油國들은 油田開發에 投資된 莫大한 資本을 조속히 回收하기 위해 積極적인 生産政策을 펴고 있으며 需給狀況 여하에 따라 迅速히 價格을 調整하여 生産체어를 꾸준히 增加시켜 나가고 있다.

바로 이 점이 OPEC에게 決定打와 같은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지난 해 非OPEC自由世界의 産油量을 世界 全体의 37.4%로 OPEC의 35.1%를 앞지르게 한 原動力이 된 것이다.

셋째 要因으로 消費國들의 購買패턴을 들 수 있

다. 두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를 통해 革命이나 戰爭 等的 政治的 要因에 의한 供給中斷의 不安을 體驗한 消費國들은 從來의 中東일변도에서 탈피하여 輸入源을 多변화시켜 供給地를 分散시킴으로써 OPEC 原油에 對한 需要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最近 OPEC에 겪고 있는 危機는 이러한 構造的인 모순과 問題點들이 實證的으로 立証된 것이며, 또한 需給關係라는 經濟的인 大原則을 無視할 수 없다는 OPEC으로서의 限界點을 露出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우디의 負擔과 犧生

이러한 危機를 극복하고 財政的인 不況을 打開하기 위한 最近의 協商에서도 前述한 바와 같이 強·隱雨派間의 對立으로 쉽게 실마리를 풀지 못 하고 있다. 各 會員國들간의 갈등이나 兩派派閥間의 對立이 過去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로 이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가 OPEC의 宗主國으로서 그 큰 負擔과 犧生을 堪耐해 왔기 때문이다.

産油政策面으로 볼 때 供給이 逼迫하여 高油價가 維持될 때 이란, 리비아등의 強硬國들은 資源 保存 政策을 내세워 生産量을 減縮시키는데 반해 余他隱健産油國들은 계 케이스를 維持하고 사우디는 強硬國들의 減産한 만큼을 增産하여 全体的인 需給均衡을 맞추려 努力하고 있다.

反對로 供給이 需要를 超過하는 過剩現狀 下에서

〈表-2〉 世界의 産油 量

(單位 : 1,000b/d, %)

	1차석유위기와 그 후의 불황기				2차석유위기와 그 후의 불황기							
	1974年		1975年		1979年		1980年		1981年		1982年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生産量	構成比
사우디아라비아	8,480	(15.2)	7,075	(13.3)	9,534	(15.2)	9,900	(16.7)	9,827	(17.5)	6,500	(12.3)
O P E C 計	30,656	54.8	27,124	51.1	30,759	49.0	26,841	45.0	22,542	40.2	18,600	35.1
멕시코	571	(1.0)	705	(1.3)	1,461	(2.3)	1,936	(3.2)	2,312	(4.1)	2,700	(5.1)
北海	69	(0.1)	201	(0.4)	1,971	(3.1)	2,147	(3.6)	1,811	(3.2)	3,200	(6.0)
非OPEC自由世界	14,500	25.9	14,234	26.8	17,771	28.3	18,341	30.7	18,878	33.7	19,800	37.4
共産圈	10,769	19.3	11,722	22.1	14,237	22.7	14,488	24.3	14,596	26.1	14,600	27.5
世界計	55,925	100.0	53,080	100.0	62,767	100.0	59,670	100.0	56,016	100.0	53,000	100.0

資料 : OGI, PIW

價格이 떨어지면 強硬國들은 油價下落分 만큼의 財政歲入 缺損分을 補充하기 위해 오히려 增産을 斷行하고 사우디는 또한 이들이 增産한 분 만큼의 減産을 하는등 自体 産油量을 쿼터에 묶지않고 Swing·프로듀서로서 그때 그때의 需給狀況 如何에 따라 他産油國의 增減産分을 흡수하는 완충역활을 하고 있다.

價格政策面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供給이 逼迫할 때 強硬國들은 産油量을 줄이며 直·間接的인 方法으로 價格을 引上시키고 反對로 供給過剩時에는 割引販売等으로 油價를 引下하여 市場쇄어를 確保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基準油價를 그대로 維持해 나가면서 他産油國이 確保하고 남은 市場을 차지하는 不利益을 감수하고 있다.

·最近 이란, 나이지리아등이 油價의 變則引下로 生産쇄어를 確保하고 있으나 사우디는 34\$의 基準油價를 그대로 維持함으로써 産油量이 350余萬b/d 水準으로 激減된 것이 그 전형적인 實例가 되고있다.

이러한 패턴이 OPEC의 油價및 産油政策의 基本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一部에선 OPEC를 SOPEC(사우디石油輸出國機

構)라고 부를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의 主導權을 잡고 있는 한편 모든 負擔과 不利益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사우디의 産油量이 最近 350萬b/d로 經對 財政需要에도 못미치는 水準으로 떨어진 現時點에서 사우디가 계속 OPEC의 需給調節負擔을 감내해 나갈 것인가는 의문시 되고 있다. 現在 論議되고 있는대로 基準油價를 30弗로 4弗을 내리고 生産上限線을 1,700萬b/d 内外로 國別쿼터를 再配定하여 이를 各 會員國들이 엄격히 尊守한다 하더라도 사우디는 今年에 약 328億弗 以上の 經常收支赤字를 記錄하게 되며 OPEC全體로는 515億弗의 赤字가 發生하게 된다는 試算도 나오고 있다.

### 分裂과 對立

13個 會員國間의 政治, 社會, 宗教的인 對立과 갈등은 前述한 바와 같으나 最近과 같은 不況期를 맞아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의 戰爭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란과 사우디의 對立은 어느 때 보다도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強·隱派間의 兩大支柱로서 OPEC의 主導權 쟁탈전이라고 할 만큼 對決을 위한 對決의 印象이 짙다. 우선 3月 8日 런던 全體會議에 임해서도 自國은 이미 油價를 引下하여 販売를 해오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사우디의 基準油價 引下提案을 強力히 反對하고 나선 것이라든가 生産쿼터量도 300萬b/d 水準에서 사우디와 同率로 割當하자는 등 客觀的인 現實與件을 무시한 一方的인 犧牲을 강요하는 역지를 부리고 있다.

13個 會員國中 처음으로 公式價格의 大幅的인 引下를 斷行함으로써 油價引下 경쟁의 序幕을 장식한 나이지리아와 여타 會員國間의 對立도 OPEC의 既存질서를 파괴한 重大한 問題를 대두되고 있다. 現職 議長國인 나이지리아의 이같은 強硬措置는 強力한 國內 지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의 커다란 政治的 爭點이 되고 있다.

現 野黨(Unity Party)의 黨首로 샤가리大統領의 政敵인 Obafemi Awolowo는 샤가리政權의 對OPEC政策을 公同연히 비난하면서 獨自的인 石油政策을 펴야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事實 5.5弗의

(表-3) OPEC경상수지 추산  
(單位: 億弗)

구 분	국 명	1982	1983
페 灣 4 個 國	사우디아라비아	15	- 328
	쿠 웨 이 트	91	72
	U. A. E.	37	5
	카 타 르	13	- 1
전 쟁 국	이 란	7	81
	이 라 크	-83	-100
아 프 리 카 諸 國	리 비 아	20	45
	알 제 리	-34	-50
	나 이 지 리 아	-60	-115
	가 봉	1	0
기 타	인 도 네 시 아	-90	-109
	베 네 수 엘 라	1	1
	에 파 도 르	-12	-15
계		-93	△515

註: 1) 83年 推算은 1月 産油量(1,708萬b/d)를 기준.

2) 各國 共히 배럴당 4\$씩 引下하는 것을 前提로 함.

資料: 中東經濟研究所 作成

大幅의인 引下措置는 새롭게 강력한 販賣政策의 신호로서 나이지리아國內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그가 選舉에서 勝利할 경우 OPEC 加盟与否와 原油價格에 관한 問題를 全面再檢討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로서는 나이지리아가 OPEC의 會員國으로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脫退의 뜻을 分明히 밝히고 있다.

나이지리아가 最近의 協議過程에서 全 會員國의 눈총과 질책을 받으면서도 타 회원國의 要求대로 油價를 다시 새로운 基準油價에 맞춰 調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內部 事情이 있기 때문이다.

아름든 앞으로 있을 選舉의 결과는 두고 보아야 겠으나 石油情勢가 急激히 好轉되지 않는한 나이지리아의 OPEC脫退可能性도 짙어지고 있으며 會員資格을 維持한다고 해도 諸般 規程이나 合議事項을 遵守할 可能性은 희박할 것으로 分析돼 OPEC의 새로운 不安要因이 되고 있다.

이란이나 나이지리아의 單獨의 主張이나 行動으로 最近 OPEC內部에서 多數決 原則을 採択하자는 提案도 나오고 있으나 이 自体가 OPEC의 既存體制가 붕괴되고 있음을 스스로 認定하는 것이다. OPEC의 議事決定은 全員一致制로서 1個國이라도 反對를 할 경우 아무런 決定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OPEC는 그만큼 全員一致制度를 통해 全會員國間의 團結을 最優先 課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설령 어떠한 劇의인 계기가 마련되어 價格이나 產油量 問題에 關係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指適한 対立이나 갈등要因이 근본적으로 解消되지 않는 한 이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IV. 結 論

이같은 內的인 問題以外에도 OPEC의 存立을 維持하는 要因으로 英國, 墨西哥 등 非OPEC 産油國들의 協助와 原油需要 問題를 들 수 있다.

칼데론 베네수엘라 石油相等 一部OPEC石油相들의 간곡한 要請에도 不拘하고 英國은 國營石油會社인 BNOG가 國際石油市場에서 받을 수 있는 最高價格으로 原油를 販賣하게 할 뿐 政府는 이에 對한 統制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서 OPEC에의 協助를 거부하고 있으며 런던에서 OPEC非公式 全體會議가 열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BNOG는 110,000~120,000b/d의 原油를 現物市場 販賣하고 있는 것으로 報道되고 있다.

또한 蘇聯도 8日 OPEC의 29弗로의 油價引下說이 나오자마자 A/L과 거의 같은 油質인 自國産 Ural原油의 西歐向 販賣價格을 27.50弗로 1.75弗을 引下한다는 發表를 하였다.

멕시코도 OPEC의 合意可能性이 悲觀的이라는 見解에 따라 12日 閣僚會議를 召集, 自國産 原油價格의 調整問題를 論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C의 死活과 結果에 크게 關係되는 石油의 需要展望도 OPEC에게는 상당히 悲觀的으로 나타

(表-4) 油價引下가 石油需要에 미치는 影響

年	4 弗 引下의 경우 (3%, 2%)			6 弗 引下의 경우 (3%, 2%)			10 弗 引下의 경우 (5%, 3%)		
	實質價格	O E C D 需 要	自由世界 需 要	實質價格	O E C D 需 要	自由世界 需 要	實質價格	O E C D 需 要	自由世界 需 要
1982	33.4	32.9	45.4	33.4	32.9	45.4	33.4	32.9	45.4
1983	28.8	32.4	45.2	27.0	32.5	45.2	22.9	32.7	45.5
1984	28.0	33.5	46.5	26.2	33.8	46.8	21.8	34.5	47.8
1985	27.1	34.9	48.1	25.4	35.4	48.7	20.7	36.9	50.6
1986	26.3	35.9	49.4	24.7	36.6	50.2	19.7	38.9	53.0
1987	25.5	36.6	50.4	33.9	37.3	51.1	18.7	40.0	54.5
1988	24.8	37.2	51.2	23.2	38.0	52.0	17.8	41.0	55.9
1989	24.1	37.8	52.1	22.6	38.6	52.9	17.0	42.0	57.3
1990	23.3	38.4	53.0	21.9	39.2	53.9	16.1	42.9	58.8

註) : 價格은 \$/bbl, 需要는 百萬b/d, ( )內는 OECD潛在物價上昇率, 開途國 石油需要 增加率

資料 : 中東經濟 研究所 推定



나고 있다.

지난해 IEA가 分析, 發表한 2000년까지의 長期 石油需給 戰望에서도 石油는 1990年 以後에나 약간의 供給不足 現象을 보일뿐 80年代에는 需給의 均衡이 이루어져 어떠한 政治的인 돌발事態가 發生하지 않는한 需給狀況은 원만한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또한 한창 거론되고 있는 바와같이 油價가 4弗이나 또는 그 以上으로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需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最近 日本의 中東經濟研究所가 發表한 바에 따르면 油價가 4弗에서 10弗까지 떨어져도 그것이 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年 以後가 되며 需要增大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卽 4弗引下의 경우 自由世界의 需要는 85년에 4,810萬b/d水準으로 82년에 比해 270萬b/d程度 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당분간은 中東에서의 돌발사태가 야기되지

않는한 最近과 같은 需給의 緩和狀態가 계속되어 需要增加로 因한 OPEC의 재결속은 現在로선 期待하기 어렵다.

이러한 内外的인 要因을 綜合해 볼 때 OPEC의 地位는 계속저하되어 既に 體制나 질서는 붕괴되고 새로운 體制나 질서하에 새롭게 재편되거나 아니면 現 體制下에서 命脈을 維持한다 하더라도 카르텔로서의 機能을 完全히 상실한 이름뿐인, 상징적인 機構로 轉落할 可能性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見解는 어떠한 政治的인 돌발 事態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한 것으로서 世界의 火藥庫로 항시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中東 情勢를 감안할 경우 이러한 展望이나 見解는 일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

따라서 石油의 消費節約, 備蓄增強, 石油資源 및 代替에너지資源의 開發施策은 不斷히 推進되어야만 할 것이다. \*

##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石油協會報」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誌面을 최대한 削愛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이나 자료는 本誌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주는 소중한 육고가 될 것입니다.

### ●종 류

석유에 관련된 정보 및 논문, 제언, 회원 사소식 및 사진등,

### ●원고매수

8매안팎, 연구논문이나 제언등은 길어도 좋습니다.

### ●원 고 료

채택된 원고는 本誌 所定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마 감

매달 5일을 원칙으로 하나 수시로 접수 합니다.

### ●기 타

필자사진을 비롯한 원고내용과 관계되는 사진도 동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고에는 회사, 부서, 직책 및 연락처(전화번호)등을 기록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 낼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삼일로빌딩 22층)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편집실.  
(전화 : 723 - 7127)